

# 5강 싸움... 패배는 노!

〈롯데 선발 노경은〉

**KIA, 1계입차 롯데와 후반기 첫 격돌... 시즌 7승2패 우위 상승세 양현종-노경은 선발...살얼음 승부에 집중력 관건**

‘호랑이 군단’의 5강 싸움, 시작부터 세게 붙는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낸 KIA 선수단이 18일 오후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16일 오후 훈련 후 17일 하루 휴식을 취했던 선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후반기 체제에 돌입했다.

4년 연속 남의 가을 잔치를 지켜보아야 했던 KIA에게 5강은 간절한 목표다. 시즌 종료까지 앞으로 61경기가 남았지만 후반기 초반 흐름에 따라 가을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일단 후반기 첫 상대부터 5위를 놓고 얽히지 않으려는 KIA는 7승2패로 앞서 있지만 5강 라이벌의 대결인 만큼 승패의 의미가 더 큰, 부담스러운 승부다.

KIA는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NC를 상대해야 한다. 이어 kt와 SK가 다음 상대로 대기하고 있다.

5강 싸움의 기선 제압을 위해 마운드에서 KIA 양현종과 롯데 노경은이 맞붙는다.

시즌 초반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양현종이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발진의 든든한 축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도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1회 위기를 잘 넘긴 뒤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냈다. 불발었던 타선의 침묵이 아쉬웠던 경기. 이번에는 좋은 기억을 안고 5승을 노린다.

올 시즌 KIA는 롯데에 강한 면모를 보

■ 프로야구 순위 (18일 현재)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두산	55	1	27	0.671	0.0	2패
2 NC	47	2	28	0.627	4.5	2승
3 넥센	48	1	36	0.571	8.0	5승
4 SK	43	0	42	0.506	13.5	1승
5 롯데	39	0	43	0.476	16.0	2승
6 KIA	38	1	44	0.463	17.0	1패
7 한화	34	3	44	0.436	19.0	2승
8 LG	34	1	45	0.430	19.5	2패
9 삼성	34	1	48	0.415	21.0	2패
10 kt	32	2	47	0.405	21.5	3패



롯데 노경은

였다. 0.332의 팀타율과 0.523의 장타율로 경기당 평균 8.3점을 만들어냈다. 롯데 투수들을 상대로 11개의 홈런도 뽑아냈다.

양현종도 6월23일 롯데전에서 올 시즌 가장 좋은 피칭을 선보였다. 7이닝 4피안타(1피홈런) 2실점.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지만 탈삼진은 9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경은에게도 KIA는 반가운 팀이다. 우여곡절 두산에서 롯데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노경은은 KIA를 상대로 체면치레를 했다. 롯데 이적 후 세 번째 등판이자 첫 선발 날이었던 지난 6월22일 노경은은 5이닝 4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4실점(3자책)의 기록을 남겼다. 완벽한 피칭은 아니었지만 볼 뺏은 롯데 타자들의 활약으로 경기가 18-5로 끝나면서 노경은은 이적 후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었다. 올 시즌 노경은의 유일한 승이자, 롯데가 KIA에게 가져간 2승 중 하나다.

노경은은 첫 승 이후 삼성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7월 두 번의 등판에서는 6.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3개의 피홈런도 기록하는 등 7월 두 경기 평균자책점은 9.95로 치솟아있다. 좋은 기억을 살려 후반기 반전을 노리는 노경은이다.

올스타 브레이크로 떨어진 실전 감각 속 5강 맞상대의 경기를 해야 하는 만큼 집중력이 중요하다. 작은 수비 싸움에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KIA는 지난해에 비해 한층 단단해진 공격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2015시즌 막판 싸움을 이끌었던 견고한 수비에 빈틈이 생겼다. 특히 유격수 자리에서 결정적인 실책이 속출했다.

양현종을 앞세운 KIA가 롯데전 우위를 이어가면서 5강 싸움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양현종이 SK 8번 김동엽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7회초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한 뒤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프로야구 신기록 쏟아진다

**KIA 리그 첫 2만6천 탈삼진 '-460'·4300도루 '-85'**

**삼성 이승엽, KBO 최다 타점 29점·득점 48점 남아**

프로야구가 19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잠시 숨을 골랐던 기록행진도 재개된다.

KIA는 KBO 리그 통산 첫 번째 2만 6000탈삼진(-460)과 4300도루(-85)를 앞두고 있다.

팀에서 가장 많은 82경기를 소화한 김주찬은 1400경기에 20경기가 부족하다. 8번 담장을 넘기면 100홈런 기록, 22루타를 더하면 2100루타 기록을 쓴다. 나지완은 48경기에 나오면 1000경기 출장 선수가 된다. 전반기 기록의 단골 주인공이었던 이범호는 1500안타(-35)를 준비하고 있다. 2600루타에는 한나가 부족하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바쁘다. 200

이닝을 놓고 헥터(-79.2)와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양현종(-80.2)은 3년 연속 10승(-6)과 통산 7번째 150탈삼진(-14)을 조준하고 있다. 일단 9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1000탈삼진 주인공이 된다. 돌아온 임창용은 앞으로 38.1이닝을 소화하면 1600이닝 투구를 기록한다. 통산 8번째 1300탈삼진에는 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

‘라이온킹’ 이승엽(삼성)은 전반기까지 1360타점, 3707루타, 1251득점을 기록하면서 양준혁이 가지고 있는 KBO 리그 역대 최다 타점, 루타, 득점 기록 경신에(1389타점, 3879루타, 1299득점)에 근접해 있다.

도중 투수 중 가장 많은 10번의 선발

승을 수확한 ‘검없는 신인’ 신재영(넥센)은 1995년 LG 이상훈 이후 무려 21년 만에 국내 투수 선발 20승이라는 대기록을 노린다. 장원준(두산)은 이강철(10년)과 정민철(8년)등 2명 만이 달성한 7년 연속 10승 고지에 1승을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10년)에 이어 역대 2번째 9년 연속 100탈삼진(-74)에도 도전한다.

안지민(삼성)의 KBO 리그 최초의 통산 200홀드(-23)와 5년 연속 20홀드(-15)에도 눈길을 쫓는다. 전반기에 21홀드를 쓸어담은 정재훈(두산)은 안지민의 한 시즌 최다 홀드(37개) 기록 경신을 노린다. 손승락(롯데)의 역대 5번째 200세이브(-11)와 구대성(7년)에 이은 역대 2번째 5년 연속 20세이브도 눈에 띈다.

정근우(한화)는 KBO 리그 최초 11년 연속 20도루(-3) 달성 신기록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

## 강정호 13타수만에 안타... 피츠버그 18회 연장승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2타수 무안타의 침묵을 깨고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강정호는 18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방경기에서 대타로 나와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0(175타수 42안타)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전날까지 4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치지 못했다. 볼넷만 2개 골라냈다. 성폭행 추문이 불거진 이후 부진이 심해지는 듯 보였다. 이날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무릎 부상을 극복하고 지난 5월 복귀한 강정호는 대략 3경기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있다. 팀이 연장 10회로 접어들면서 강정호에게 출전 기회가 왔다.

강정호는 1-1로 맞선 10회초 선두타자 자리에 투수 마크 벨런콘 대신 타석에 들어섰지만 2루수 뜬공으로 잡혔다.

침묵은 여기까지였다. 강정호는 1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나왔고, 이번에는 맷 벨리스의 시속 150km 포심을 밀어



연합뉴스

## 신태용호 ‘결전의 땅’ 브라질로 출국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18일 브라질로 출국했다.

국내에서 훈련하던 와일드카드 석현준(FC포르투)을 비롯해 14명의 선수는 사상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과 정현수(광주), 황희찬(잘츠부르크), 김민태(베갈타 센다이)는 추후 브라질로 합류하기로 했다.

신태용 감독은 “많은 분이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주 정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했다.

올림픽 대표팀은 수비수 송주훈(미토 홀리호크)이 발가락을 다쳐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를 맞았다.

송주훈 대신 김민태를 뽑은 신태용 감독은 “조직력 문제가 염려된다. 현지 훈련 기간 더욱 수비 조직 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황희찬과 석현준이 1선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한 뒤 2선에서 손흥민, 문창진, 권창훈이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2선 공격력이 대표팀의 최대 장점인 만큼, 이 점을 끌어올려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뒤 24일 이라크와 비공개 평가전을 치르고 29일 스웨덴과 공개 평가전을 소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두목 곰’ 3년 더

**김태형 두산 감독 계약 연장...연봉 등 시즌 종료 후 협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김태형(49·사진) 감독이 2019년까지 두산을 이끈다.

두산은 김 감독과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계약금과 연봉 등 세부 내용은 시즌 종료 후 협의할 예정이다.

재계약은 예상된 일이다. 김 감독은 사령탑 부임 첫해인 지난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야구를 추구하며 두산은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려놓았다. 감독 2년 차인 올해에도 두산을 1위(55승 1무 27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두산은 김 감독이 남은 시즌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팀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결정했다. 특히 박정원 구단주도 평소 좋은 성과를 내는 동시에 고유의 팀 색깔을 되찾게 한 김 감독에게 두터운 신



임을 보여줬다고 두산은 전했다. 김 감독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팀의 전신인 OB와 두산에서 포수로 뛰며 통산 827경기에 출장해 타율 0.235(1천 835타수 432안타)를 기록했다. 2002~2011년 두산, 2012~2014년 SK에서 배터리 코치를 지낸 뒤 지난해 두산의 사령탑을 맡아 부임 첫해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